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 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과 결혼안정성의 구조적 관계 연구

김진순* 오윤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 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과 결혼안정성의 구조적 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는 국내 기독교 중년부부 724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 자료는 SPSS 21.0과 AMOS 26.0을 활용했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5% 이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적·심리적 안녕감은 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 결혼안정성에 영향력이 나타났다. 둘째, 조망수용은 부부갈등 대처행동과 결혼안정성에 영향력이 나타났다. 셋째, 부부갈등 대처행동은 결혼안정성에 영향력이 나타났다. 넷째, 영적·심리적 안녕감은 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경로를 통해 직접효과($B=.165, p<.001$), 간접효과($B=.089, p<.001$)로 결혼안정성에 순차적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변수관계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순차적 효과 모두 입증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결혼안정성, 영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병영생활상담관

** 한국성서대학교 기초교양교육학과 교수

• 이 연구는 한국성서대학교 김진순의 박사학위 논문(2022년 8월, 지도교수: 오윤선)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하나님께서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또한 결혼을 하나의 제도로써 규칙과 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Piper(2010)는 결혼이 하나님의 목적인 완전한 삶을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였다. 성경은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사랑, 존중, 기쁨, 복종, 희생, 돌봄, 친밀감 등으로 관계 맺기를 원한다고 설명한다(Bevere & Bevere, 2015). 사도 바울은 결혼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배우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Kelly, 2011; 창 2:24; 엡 5:31). 그리고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터득할 수 있으며, 사랑이 있어야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Kelly, 2011). 따라서 부부관계에서 삶의 안정감과 만족감은 신앙적 가치추구가 매우 중요하다. 통계청(2021)의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를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중년부부의 이혼율이 2011년에는 24.8%, 2021년에는 38.8%로 10년 사이 14%가 증가했다. 이는 중년부부의 결혼생활이 건강한 결혼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중년부부의 안정된 결혼생활이 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혼안정성의 여러 선행 연구에서 신앙적 가치들을 자신의 삶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부 일수록 결혼생활의 만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ll & Heaton, 1997; Dudley & Kosinski, 1990; Kelly, 2011; Mackey & O'Brien, 1995). 또한 영적·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높으며,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수용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28-30). 이는 개인의 영적·심리적 안녕감이 결혼안정성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미숙, 김명자, 1990: 181). 그리고 개인의 영적·심리적 안녕감과 더불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는 사회관계(송영민, 황희정, 권유흥, 2011; Mohr, 2007), 조망수용(김희진, 2005; 박남숙, 2005; 송정아, 1994; Long, 1993), 갈등대처행동(김미숙, 김명자, 1990; 송말희, 1990; Gottman, 1994; Paolucci, 1977; Straus, 1979) 등의 주요변수들이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부부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혼 부부 이혼에 관련된 연구(공정환, 2020; 구혜경, 유영달, 2008), 친밀감과 결혼만족도 연구(손강숙, 주영아, 2015; 오선주, 2002; 최규련, 1995), 자아분화수준, 애착, 성 역할, 비합리적 신념, 신앙, 의사소통, 자존감, 스트레스 등과 결혼

만족도(김두길, 유영달, 2015; 김득성, 권윤아, 2019; 차근영, 김석선, 길민지, 2017; 한혜영, 현명호, 2006)와의 관계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역할 갈등과 결혼만족(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전혜성, 서미아, 2012), 부부 위기, 갈등(김수안, 차명정, 천성문, 2017; 홍지희, 김보영, 2021) 등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결혼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결혼안정성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혼만족이나 적응에 비해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전춘애, 박성연, 1993). 특히,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중년기에 맞춰진 결혼안정성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년부부의 잠재적 위험과 급증하는 이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결혼안정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독교 중년부부의 결혼안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영적·심리적 안녕감, 부부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과 결혼안정성의 구조적 관계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원활한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방법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중년부부의 잠재적 위험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 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과 결혼안정성의 구조적 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결혼안정성과 영적·심리적 안녕감, 부부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모형 경로를 통해, 변수 간 인과관계가 이루어지는지 검증한다. 둘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영적·심리적 안녕감, 부부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영향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넷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기독교 중년부부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인간의 발달은 연속적인 변화 과정이다. 중년기는 인생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이면서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다. Erikson(1988)은 중년기를 생산성 대 침체성의 시기로 보고, 연령대를 40세~65세로 정의하였다. 중년기 부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치의 변화들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인간의 생애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으로 발달하는 변화 과정이다(이은아, 정혜정, 2007: 303). 또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적, 가정적으로 복합적인 변화의 자연스러운 단계이며, 생물학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년기는 삶의 과정 중 매우 중요한 시기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달과업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터득할 수 있으며, 사랑이 있어야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경에서는 중년기를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시기로 보았다. 이사야 38장 15절에서는 중년기에 자아 성찰, 삶의 엄숙함과 진지함이 나타나고 있다(Oswalt, 1986).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중년기에 많은 일을 경험하며 사회적, 신앙적, 관계적 끈을 놓쳐버리고 난 후부터 오는 절망과 허망함을 고백하고 있다(강덕진, 2011).

Conway(1989)는 중년기 때 마치 사춘기와 같은 방향과 충동성을 느꼈으며 가족과 일에서 오는 모든 압력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었다며 중년기의 일면을 드러냈다(윤종석 역, 2005). 그러므로 기독교인 부부들이 영적 욕구들에 대하여 개방적이어야 하며, 삶을 긍정하고 현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충족시킬 때 부부관계가 성장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성경적 가정을 바로 이해하고 훈련하여 결혼생활에서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에 근거를 둔 영적 친밀감으로 부부관계의 질을 높여야 한다.

중년기는 성숙한 관계를 위협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White, 1995). 중년기 부부들은 결혼 초에 형성된 패턴을 반복한다. 더욱이 처음에는 작은 불만들이 쌓이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신뢰가 깨지고 부정과 혹은 결혼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중년기 부부들은 올바른 관계를 기대하지만 대안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보다는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할 과제이다. 중년기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고지에 서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생성하고, 이를 위해 다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순숙, 2012: 5).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국내 중년기 연구의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부부의 위기와 갈등 연구(윤창섭, 2016; 최미란, 2020; 오소정, 2016), 둘째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관련 연구(김의진, 2014; 이연정, 2021), 셋째는 상담 프로그램(박수경 2016; 이기석, 2015)다. 김기범(1994)에 관한 연구와 기독교인 중년부부의 갈등 문제, 직장생활과 사회적 문제, 부부와 가족들 간의 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2) 영적·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반가운 변화 중 하나는 ‘영적 안녕’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첨부시켰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의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다(노영희, 홍현진, 2009). Stoll(1989: 4-21)은 영적 안녕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Banks(1980: 197-199)는 영적 안녕을 실존적 안녕과 종교적 안녕으로 구분했다. 실존적 안녕은 자신, 타인, 삶의 목적과 같은 가치적인 안녕을 의미하고, 종교적 안녕은 신과 같이 절대자와의 관계성 유지에서 갖게 되는 안녕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영적 안녕은 인간의 삶의 원리와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회적·정신적·육체적 영적 영역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건강한 개인 내적 자원 상태를 의미한다.

Stock과 Okun(1986)은 심리적 안녕감을 주관적인 정서의 면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는 심리적 안녕감을 ‘긍정 부정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경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이 ‘행복한 삶’을 의미하고 심리적 안녕감은 ‘의미 있는 삶’이라 정의하였다. Ryff(1989)는 개인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정도로서 삶의 질을 대표한다는 주관적 안녕감에 반대하며,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안녕하다는 것은 단순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개인이 얼마나 기능 하고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Ryff, 1989: 1069-1081).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수준 판단과 사회에서의 한 구

성원으로 기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Veenhoven, 1991: 2-3).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목적에 의한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실현하려는 동기와 자신의 행동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감으로 스스로 컨트롤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에 대해 연구자들은 심리와 정신적 상태 그리고 신앙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다(강희천, 2000; 이은실, 2000: 208-209).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도록 돕는 정신적 기능을 한다(박민수, 2001; 김난예, 2002: 277-278). 또한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위험과 고난을 통찰하고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도록 도와주어 세상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한다. 따라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생활만족감을 가지게 한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다. 정서의 산소라고 불리는 애정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부터 공급된다(오윤선, 2014: 346).

3) 결혼안정성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결혼안정성에 관한 개념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첫째, '결혼안정성'은 결혼이 죽음에 의해 종결되느냐 혹은 이혼이나 별거에 의해 종결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된 결혼이란 한 배우자와의 종결이 자연적인 죽음에 의한 종결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결혼이 지속되는 동안 결혼관계의 만족과 질에 초점을 둔다. '결혼행복', '결혼적응', '결혼만족' 등은 결혼의 질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Lewis와 Spanier(1979: 561-573)는 결혼안정성의 개념을 결혼생활이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보았다. 즉, 결혼생활이 지속되거나 지속되지 않는 결혼의 지위로 정의하였다.

Schumm(1982: 236-241)은 신앙심과 결혼안정성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였고, 부부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신앙심이 결혼에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지적하고 신앙심과 결혼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루터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는 제도를 결혼 자체라고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사람들을 가장 풍성히 축복하셨으며, 그들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적절히 공급하시고 부여하셨다(Bainton, 1982). Witte(1998: 41)는 그의 논문에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Gottman과 Notarius(2002: 172-176)는 사회환경적으로 연령, 직업, 교육과 같은 요인은 결혼생활에 낮은 영향을 미치며, 결혼지속년 수는 길수록 결혼안정성이 높다고 한다. 전춘애(1994)의 연구에서는 종교는 부부관계에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종교 활동은 부부의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요소라고 하였다. 부부간의 종교가 다를 경우 결혼안정성이 낮고 종교가 같을 때 결혼 안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미숙, 김명자, 1990: 171-183; 송정아, 1995: 69-77). 황종귀(2009: 825-830)의 연구에서는 성 만족과 긍정적 의사소통 및 파괴적 갈등 패턴이 적게 나타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원가족의 정서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정연표, 2010; Booth & White, 1980: 605-616; White, 1983: 511). 김득성(1994: 32)은 국내 결혼안정성 초기 연구에서 대상자의 32% 이상이 결혼에 불만족상태에서도 높은 결혼안정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대처유형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전영민, 2000).

4) 부부조망수용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Long(1990)은 조망수용능력을 결혼관계 중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았다. 또한 인지적 작용으로 '자신이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개인이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인지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부부관계에 적용한 부부 조망수용(Dyadic perspective-taking)은 자신을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인지적 활동을 뜻한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며 상대의 관점을 이해해 보려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부부조망수용은 결혼안정성과 결혼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Long, 1990: 91-103).

기독교의 독특성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에 대한 기초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김경은(1993)은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란 사랑, 죄의 인정, 용서, 고난 극복, 자유함, 타인에 대한 배려, 원만한 타인관계와 이타성을 보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부조망수용은 신앙성숙에 있어 여러 변수보다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ogers(1961)는 배우자를 자신의 관점으로 평가,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부부관계의 필수라고 하였다. 즉,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와 공감이 결혼안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Long과 Andrew(1990)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보다 결혼 관계에서 더 부정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Birchler, Weiss, & Vincent, 1975; Gottman, 1982; Winter, Ferreira, & Bowers, 1973)를 토대로, 개인은 어떤 관계에서는 적절히 조망수용능력을 발휘할 것이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부적절한 조망수용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더 잘 수용한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결혼만족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Winter, Ferreira, & Bowers, 1973: 85). 국내 연구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2005)에 따르면

조망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타협, 협동의 긍정적인 갈등 해결 대안을 선호하며, 낮은 조망수용의 사람들은 경쟁적인 전략과 부정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손아름, 임수진(2019)의 연구에서 개인이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이해하는 조망수용능력은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바른 태도를 갖게 하여 상호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조망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생활과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김희진, 2005: 898-902; 박남숙, 2005: 1113-1114).

5) 부부갈등 대처행동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Pearlin과 Schooler(1978: 2)는 갈등 대처행동이란 갈등에 대한 대처 문제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대처를 고통의 감소, 현실검증, 문제해결 등 복귀의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Straus(1979: 76)는 부부갈등 대처행동은 ‘부부가 서로의 생각에 대한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주고받는 관찰 가능한 비언어적 또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대한민국의 중년 부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노부모 부양과 자녀의 독립, 노후 준비 걱정, 고용불안정 등의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부부갈등 대처행동은 부부의 결혼적응,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 등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Collins(1984)는 기독교인 부부갈등의 대표적 요인으로 첫째는 잘못된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둘째는 가치관과 종교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셋째는 남녀의 역할 기대와 경제적인 문제이며 넷째는 자녀, 친구, 친척의 관계적 문제이다. 다섯째는 욕구불만과 권태, 불평등한 노동의 문제 등이라고 하였다. 서로 간의 긴장상태를 야기하는 성, 역할, 금전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부부관계 외의 외부에서 오는 압력 역시 언급하였다. 양신열(1996)은 부부갈등을 결혼 주기적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으로 구분해서 그 원인으로 도시화 문제, 세속화 문제, 진문화 문제, 마스크의 문제, 성도덕의 문제가 작용한다고 하였다. 부부갈등에 있어 기독교적인 신앙 또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지만 부부관계 갈등 원인도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조성주, 2001). 갈등은 각기 다른 두 사람의 대립된 욕구와 목표의 기대에 따른 불일치로 부부갈등이 강화된다(이상열, 2012: 3; Coleman, 1984). 송말희(1990: 33-35)는 갈등 대처행동 방식을 문제 또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대안을 찾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정은희(2004)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 상황에서 이성적 대처행동을 자주 사용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아지며, 회피적 방법을 자주 사용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최귀련, 1995).

2.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의 방법은 네 가지 조사도구(영적·심리적 안녕감, 결혼안정성, 부부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와 다양한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 자료는 SPSS 21.0과 AMOS 26.0을 활용했다. 본 연구 대상은 기독교 중년이면서 40세~64세 기혼을 유지하고 있는 남녀에게 온라인(구글)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와 수집은 연구자가 직·간접적으로 설문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모집 대상자는 764명이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40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24부를 통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영적·심리적 안녕감 척도

영적 안녕감(Spiritual well-being)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하고, 박만기(2015)가 사용한 척도로 진행하였다. 영적 안녕감은 주관적인 안녕 상태를 측정하려는 종교적 안녕감(Religious well-being) 10문항과, 실존적 안녕감(Existential well-being)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다. 조사도구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1>과 같다.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하고 구성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척도를 토대로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 하위요인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김경희(2014), 이효진(201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었다. 조사도구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1>과 같다.

(2) 결혼안정성 척도

결혼안정성 척도는 기혼 남녀의 결혼안정성에 대한 위기적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과 부부간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Booth, Johnson과 Edwards(1983)가 개발한 결혼불안정성(Marital Instability Index: MII) 지표를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은희(2004)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은희(2004)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었다. 조사도구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1>과 같다.

(3) 부부조망수용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부조망수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Long & Andrews(1990)가 개발한 부부조망수용(The Self Dyadic Perspective-Taking Scale: SDPT) 자기보고식 척도를 한혜영(2005)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한혜영(2005)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었다. 조사도구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1>과 같다.

(4) 부부갈등 대처행동 척도

부부갈등 대처행동 척도는 McCubbin 외(1982)가 개발한 가족대처전략척도(F-Copes)를, 최규련(1995)이 사용한 척도로 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이성적 대처', '외부도움요청', '회피 대처',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부도움요청 영역의 문항을 제외하고 '이성적 대처', '회피 대처',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 3개의 요인으로 총 16문항을 측정하였다. 최규련(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0~.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다. 조사도구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구 분	하위변수	출처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안 녕 감	종교적	Paloutzion & Ellison(1982) 이진화(2012)	10	1*,3,6*,9*,10,13*, 15,16*,18,20	.85
	실존적		10	2*,4,5*,7,8,11, 12*,14,17,19	

안 녕 감	심 리 적	긍정적 대인관계	Ryff(1989) 김명소(2001)	7	14,26*,28,38, 40*,43,45*	.94
		자아수용		7	7*,9*,17,23*, 30,34*,46*	
		환경 통제력		8	1,2,3,13,19, 20*,22*,33*	
		자율성		8	4*,10,11*,25, 29,35,37,42	
		삶의 목적		8	5,6*,8,21*, 27*,39,41*,44	
		개인적 성장		8	12*,15,16*,18*, 24,31,32,36*	
부부조망수용			Long & Andrews(1990) 한혜영(2005)	5	2,4,5,9,12*	.92
				4	1,3,8,10	
				4	6,7,11,13	
부부갈등 대처행동	이성적 회피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	McCubbin 외(1982) 최규련(1995)	5	1,8,12,14,15	.87	
			5	2,5,6,11,13		
			6	3,4,7,9,10,16		
결혼안정성			Booth 외(1983) 정은희(2004)	4	6,7,10,5*	.94
				4	8*,9*,11*,12	
				4	3,1*,2*,4*	
총계				107		

*역산채점

3) 자료분석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5% 이하로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봄으로서 정규성(Test of Normality)을 확인하였다. 넷째,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다섯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변수가 측정변수를 잘 설명하는지 살펴보는 측정모형 분석(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법칙타당도(nomological validity,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지수를 확인하였다. 여섯째, 가설검증을 위한 다변량 회귀 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및 단순 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을 실시했다. 그리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분석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 358명(49.4%), 여자 366명(50.6%)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는 만 50~59세가 389명(53.7%), 만 40~49세 247명(34.1%), 만 60~64세 88명(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분포는 서울 349명(48.2%), 경기 309명(42.7%), 인천 66명(9.1%)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장남, 장녀가 304명(42.0%), 막내 180명(24.9%), 차남, 차녀 125명(17.3%), 중간자녀 101명(14.0%), 외동 13명(1.7%), 기타 1명(0.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393명(54.3%), 대학원 115명(15.9%), 고졸 109명(15.1%),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103명(14.2%), 중졸 3명(0.4%), 초등학교 졸업 1명(0.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연수는 20~29년 333명(46.0%), 10~19년 216명(29.9%), 30~39년 145명(20.0%), 5~9년 27명(3.7%), 40년 이상 3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 429명(59.3%), 1명이 188명(26.0%), 3명이 63명(8.7%), 자녀가 없는 사람은 36명(4.9%), 4명 이상이 8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일반 사무직 174명(24.0%), 주부 168명(23.0%), 전문 기술직 117명(16.1%), 자영업 73명(10.0%), 행정 관리직 65명(9.0%), 서비스직 46명(6.4%), 기타 36명(5.0%), 교육직 34명(4.7%), 판매직 13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501만원 이상 220명(30.3%), 401~500만원이 131명(18.1%), 301~400만원이 123명(17.0%), 201~300만원이 123명(17.0%), 101~200만원이 83명(11.5%), 100만원 이하가 44명(6.1%)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결혼 형태는 연애 430명(59.4%), 중매/소개+연애가 157명(21.7%), 중매/소개 137명(18.9%) 순이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N=724)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58	49.4
	여성	366	50.6
연령대	만40~49세	247	34.1
	만50~59세	389	53.7
	만60~64세	88	12.2
지역	서울	349	48.2
	인천	66	9.1
	경기	309	42.7
출생순위	장남, 장녀	304	42.0
	차남, 차녀	125	17.3
	중간자녀	101	14.0
	막내	180	24.9
	외동	13	1.7
	기타	1	0.1
학력	초등학교 졸업	1	0.1
	중졸	3	0.4
	고졸	109	15.1
	전문대졸 및 대학 중퇴	103	14.2
	대졸	393	54.3
	대학원 졸업 이상	115	15.9
결혼연수	5~9년	27	3.7
	10~19년	216	29.9
	20~29년	333	46.0
	30~39년	145	20.0
	40년 이상	3	0.4
자녀수	0명	36	4.9
	1명	188	26.0
	2명	429	59.3
	3명	63	8.7
	4명 이상	8	1.1
직업	전문 기술직	117	16.1
	행정 관리직	65	9.0
	일반사무직	174	24.0
	자영업	73	10.0
	판매직	13	1.8
	서비스직	46	6.4
	주부	168	23.0
	교육직	34	4.7
월평균 소득	기타	36	5.0
	100만원 이하	44	6.1
	101~200만원	83	11.5
	201~300만원	123	17.0
	301~400만원	123	17.0
	401~500만원	131	18.1
결혼 형태	501만원 이상	220	30.3
	중매/소개	137	18.9
	연애	430	59.4
	중매/소개+연애	157	21.7

2) 관측변수의 정규성 검정

본 연구의 주요 잠재변수인 영적·심리적 안녕감, 결혼안정성, 부부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각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으며,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분석하였다. 이에 모든 측정변수는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에 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N=724)

구 분	하위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영적· 심리적 안녕감	CW_T	1.40	5.00	3.632	.737	.027	-.456
	EW_T	1.30	5.00	3.616	.647	-.099	.021
	S1_M	2.00	5.00	3.377	.466	.206	.228
	S2_M	1.57	5.00	3.364	.537	.018	-.084
	S3_M	2.00	5.00	3.271	.488	.208	.162
	S4_M	1.75	4.75	3.396	.434	-.030	.409
	S5_M	1.88	5.00	3.309	.475	-.051	.106
	S6_M	1.63	5.00	3.221	.470	.150	.611
부부 조망수용	P1_M	1.00	5.00	3.471	.528	-.139	.692
	P2_M	1.00	5.00	3.528	.586	-.454	.522
	P3_M	1.00	5.00	3.450	.606	-.349	.496
부부갈등 대처행동	C1_M	2.40	5.00	3.696	.550	-.011	-.365
	C2_M	2.20	5.00	3.388	.511	.106	-.338
	C3_M	2.17	5.00	3.672	.459	-.017	-.146
결혼 안정성	M1_M	1.00	5.00	3.566	.849	-.311	-.378
	M2_M	1.00	5.00	3.820	.839	-.433	-.412
	M3_M	1.00	5.00	3.390	.892	-.100	-.640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모형에 의해 구성된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적·심리적 안녕감, 부부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 결혼안정성은 서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먼저 영적·심리적 안녕감을 구체적으로 종교적 안녕감은 실존적 안녕감($r=.925$, $p<.01$), 긍정적 대인관계($r=.654$, $p<.01$), 자아수용($r=.631$, $p<.01$), 환경통제력($r=.608$, $p<.01$), 자율성($r=.570$, $p<.01$), 삶의 목적($r=.634$, $p<.01$), 개인적 성장

($r=.602$, $p<.01$), 부부조망수용($r=.460$, $p<.01$),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이성적 대처($r=.467$, $p<.01$), 회피($r=.451$, $p<.01$),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r=.426$, $p<.01$), 결혼안정성($r=.527$,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실존적 안녕감은 긍정적 대인관계($r=.608$, $p<.01$), 자아수용($r=.594$, $p<.01$), 환경통제력($r=.571$, $p<.01$), 자율성($r=.552$, $p<.01$), 삶의 목적($r=.592$, $p<.01$), 개인적 성장($r=.564$, $p<.01$), 부부조망수용($r=.463$, $p<.01$),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이성적 대처($r=.448$, $p<.01$), 회피($r=.412$, $p<.01$),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r=.400$, $p<.01$), 결혼안정성($r=.482$,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자아수용($r=.749$, $p<.01$), 환경통제력($r=.713$, $p<.01$), 자율성($r=.742$, $p<.01$), 삶의 목적($r=.752$, $p<.01$), 개인적 성장($r=.741$, $p<.01$), 부부조망수용($r=.495$, $p<.01$) 나타났으며,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이성적 대처($r=.509$, $p<.01$), 회피($r=.474$, $p<.01$),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r=.444$, $p<.01$), 결혼안정성($r=.485$,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아수용은 환경통제력($r=.693$, $p<.01$), 자율성($r=.662$, $p<.01$), 삶의 목적($r=.736$, $p<.01$), 개인적 성장($r=.672$, $p<.01$), 부부조망수용($r=.422$, $p<.01$),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이성적 대처($r=.509$, $p<.01$), 회피($r=.480$, $p<.01$),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r=.462$, $p<.01$), 결혼안정성($r=.493$,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환경통제력은 자율성($r=.704$, $p<.01$), 삶의 목적($r=.749$, $p<.01$), 개인적 성장($r=.734$, $p<.01$), 부부조망수용($r=.550$, $p<.01$),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이성적 대처($r=.519$, $p<.01$), 회피($r=.461$, $p<.01$),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r=.446$, $p<.01$), 결혼안정성($r=.532$,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율성은 삶의 목적($r=.730$, $p<.01$), 개인적 성장($r=.749$, $p<.01$), 부부조망수용($r=.504$, $p<.01$),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이성적 대처($r=.437$, $p<.01$), 회피($r=.390$, $p<.01$),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r=.394$, $p<.01$), 결혼안정성($r=.443$,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삶의 목적은 개인적 성장($r=.753$, $p<.01$), 부부조망수용($r=.447$, $p<.01$),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이성적 대처($r=.510$, $p<.01$), 회피($r=.468$, $p<.01$),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r=.449$, $p<.01$), 결혼안정성($r=.516$,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개인적 성장은 부부조망수용($r=.447$, $p<.01$),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이성적 대처($r=.501$, $p<.01$), 회피($r=.466$, $p<.01$),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r=.430$, $p<.01$), 결혼안정성($r=.510$,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부조망수용은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이성적 대처($r=.495$, $p<.01$), 회피($r=.397$, $p<.01$),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r=.436$, $p<.01$), 결혼안정성($r=.562$,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이성적 대처는 회피($r=.689$, $p<.01$),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r=.705$,

$p<.01$), 결혼안정성($r=.616$, $p<.01$)에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회피는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r=.693$, $p<.01$), 결혼안정성($r=.555$,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정적 감정 행동표출은 결혼안정성($r=.527$, $p<.01$)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관측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변인 간 상관계수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종교적	1												
2 실존적	.925*	1											
3 대인관계	.654*	.608*	1										
4 자아수용	.631*	.594*	.749*	1									
5 환경통제	.608*	.571*	.713*	.688*	1								
6 자율성	.570*	.552*	.742*	.662*	.704*	1							
7 삶의 목적	.634*	.532*	.752*	.736*	.749*	.730*	1						
8 개인 성장	.602*	.564*	.741*	.672*	.734*	.749*	.753*	1					
9 조망수용	.460*	.463*	.495*	.422*	.550*	.504*	.447*	.447*	1				
10 이성적	.467*	.448*	.509*	.509*	.519*	.437*	.510*	.501*	.495*	1			
11 회피	.451*	.412*	.474*	.480*	.461*	.390*	.468*	.466*	.397*	.689*	1		
12 부정적 감정표현	.426*	.400*	.444*	.462*	.446*	.394*	.449*	.430*	.436*	.705*	.688*	1	
13 결혼안정성	.527*	.482*	.485*	.493*	.532*	.443*	.516*	.510*	.562*	.616*	.555*	.527*	1

** $p<.01$

4)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1) 집중 타당성 검증

처음으로 확인한 집중 타당성은 잠재변수로 표현된 구성개념을 측정변수들이 일관성 있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한다. 검증 방법은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값을 확인하여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유의성 및 AVE를 확인하여 타당성을 검증했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따른 각 경로에 대한 모수 추정치와 AVE를 다음의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691에서 .937의 범위에 있었으며 모든 경로는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AVE는 영적·심리적 안녕감 .663, 부부조망수용 .798, 부부갈등대처 .673, 결혼안정성은 .840로 모형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다.

<표 5> 측정변수 경로계수(N=724)

잠재변수	관찰변수		Estimate		S.E.	C.R.	AVE	개념 신뢰도
			B	β				
안 녕 감	영적	→ CW_M	1	.735	—	—	.663	.948
		→ EW_M	.929	.691	.020	47.508***		
	심 리 적	→ S1_M	.836	.873	.035	24.030***		
		→ S2_M	.915	.830	.040	22.747***		
		→ S3_M	.850	.847	.037	23.264***		
		→ S4_M	.732	.822	.033	22.471***		
		→ S5_M	.855	.876	.035	24.140***		
		→ S6_M	.815	.845	.035	23.150***		
부부 조망수용		→ P1_M	1	.878	—	—	.798	.923
		→ P2_M	1.132	.895	.034	33.419***		
		→ P3_M	1.186	.907	.035	34.144***		
부부갈등 대처행동		→ C1_M	1	.889	—	—	.673	.874
		→ C2_M	.817	.781	.036	22.531***		
		→ C3_M	.740	.787	.033	22.761***		
결혼 안정성		→ M1_M	1	.937	—	—	.840	.942
		→ M2_M	.955	.905	.023	41.470***		
		→ M3_M	1.015	.906	.024	41.551***		

*** $p < .001$, B=비표준화 회귀계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2) 판별타당성 검증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독립된 잠재변수를 나타내는 차이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AVE를 통해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잠재변수 간의 추정된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각 잠재변수의 AVE 값과의 비교를 통해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잠재변수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표 6〉 판별타당성 검증결과(N=724)

구분	영적·심리적 안녕감	부부 조망수용	부부 갈등대처	결혼 안정성	개념 신뢰도
영적·심리적 안녕감	.814(.663)				.948
부부 조망수용	.587(.345)***	.893(.798)			.923
부부갈등 대처행동	.666(.444)***	.568(.323)***	.820(.673)		.874
결혼안정성	.609(.371)***	.603(.364)***	.707(.500)***	.916(.840)	.942

*** $p < .001$, : AVE 값,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 값

(3) 법칙타당성 검증

법칙 타당성(nomological validity)은 이론을 바탕으로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의 방향성이 이론과 같고, 상관 정도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표 7〉과 같이 잠재변수 간의 상관이 모두 정적 방향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며, 연구의 가설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N=724)

구분	영적·심리적 안녕감	부부 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	결혼 안정성
영적·심리적 안녕감	1			
부부 조망수용	.540**	1		
부부갈등 대처행동	.580**	.497**	1	
결혼 안정성	.579**	.562**	.637**	1

** $p < .01$

5)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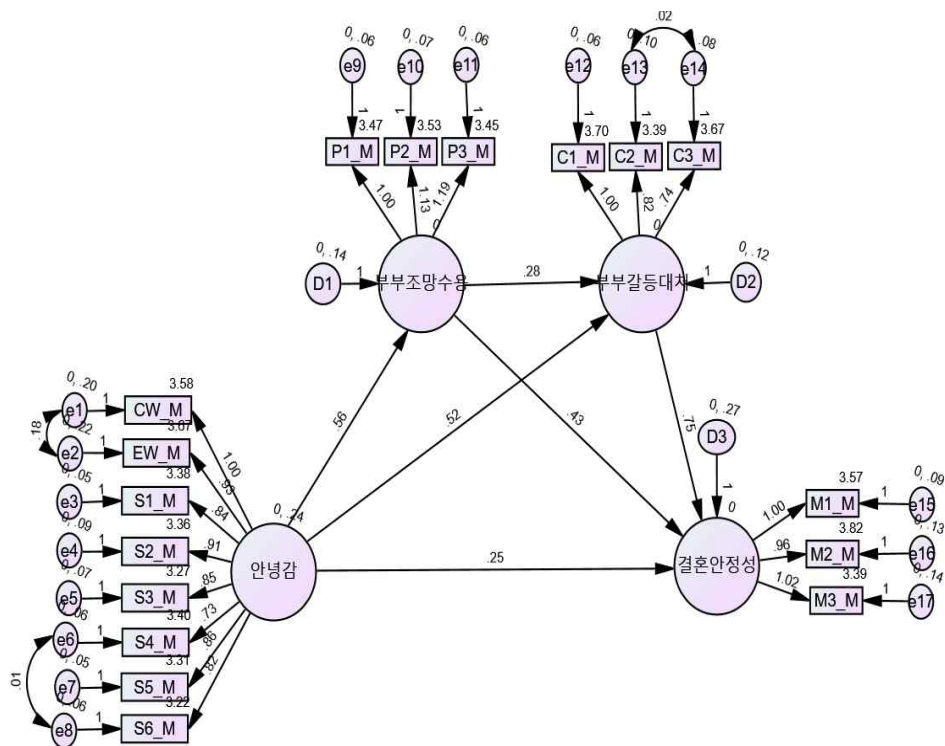
측정모형 분석에 따라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 후, 이론적 연구모형에 따라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283.292($df=110$, $p < .001$)으로 나타났다. RMSEA=.047, TLI=.981, CFI=.985로 기준 값을 모두 충족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8>과 같다. 본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부부조망수용을 통한 간접경로 및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경로 유의성은 (그림 2)와 같으며, 모형 경로 지수는 <표 9>와 같다.

<표 8> 연구모형 적합도지수

구분	χ^2	df	RMSEA	TLI	CFI
기준			$\leq .1$	$\geq .90$	$\geq .90$
추정값	283.292***	110	.047	.981	.985

*** $p < .001$



(그림 1) 연구모형 경로 유의성

〈표 9〉 모형 경로 지수

경로			B	β	S.E	C.R
영적·심리적 안녕감	→	부부조망수용	.558	.587	.039	14.482***
		부부갈등 대처행동	.518	.516	.045	11.479***
		결혼안정성	.247	.151	.071	3.469***
부부 조망수용	→	부부갈등 대처행동	.280	.265	.044	6.408***
		결혼안정성	.434	.253	.066	6.578***
부부갈등 대처행동	→	결혼안정성	.752	.462	.076	9.863***

*** $p < .001$

6) 가설 검증 검증

본 연구의 마지막 가설의 최종모형인 영적·심리적 안녕감과 결혼안정성의 관계에서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순차적 부분매개 모형에 대한 모든 직접경로 검증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순차적 모형의 직접 경로 유의성

경로			B	β	S.E.	C.R.
영적·심리적 안녕감	→	부부조망수용	.558	.587	.039	14.482***
영적·심리적 안녕감	→	부부갈등대처행동	.518	.516	.045	11.479***
영적·심리적 안녕감	→	결혼안정성	.247	.151	.071	3.469***
부부조망수용	→	부부갈등대처행동	.280	.265	.044	6.408***
부부조망수용	→	결혼안정성	.434	.253	.066	6.578***
부부갈등대처행동	→	결혼안정성	.752	.462	.076	9.863***

*** $p < .001$, B=비표준화 회귀계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첫째,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부부조망수용,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부부갈등대처 행동, 부부조망수용에서 부부갈등대처행동, 부부갈등대처행동에서 결혼안정성의 경로

는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001 미만에서 유의하였다. 이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출발하여 부부조망수용까지($B=.558$, $\beta=.587$, $p<.001$), 부부갈등대처행동까지는($B=.518$, $\beta=.516$, $p<.001$), 결혼안정성까지는($B=.247$, $\beta=.151$, $p<.001$) 부부조망수용에서 부부갈등 대처행동까지는($B=.280$, $\beta=.265$, $p<.001$), 결혼안정성($B=.434$, $\beta=.253$, $p<.001$), 부부갈등 대처행동에서 결혼안정성까지는($B=.752$, $\beta=.462$, $p<.001$)이었다.

둘째,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10000번으로 지정하여 실시했다. 분석결과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부부갈등 대처행동까지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나머지 간접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셋째, 순차적 매개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 총효과 및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값을 제시했다. 영적·심리적 안녕감은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순차적인 부분 매개모형을 통한 결혼안정성 결과 직접효과($B=.165$, $p<.001$)와 총효과($B=.614$, $p<.001$)가 나타났다. SMC 값을 통해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결혼안정성의 결과의 57%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 <표 1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1> 순차적 모형의 직접 효과와 SMC

경로				직접효과	총효과	SMC			
영적·심리적 안녕감	→	부부 조망수용	→	부부갈등대 처행동	→	결혼 안정성	.165	.614	.571

본 연구에서는 영적·심리적 안녕감이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을 거쳐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B=.089$, $p<.001$)인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표 12>와 같이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는 영적·심리적 안녕감과 결혼안정성에 있어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간접효과(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10000개로 지정한 후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였다(Hayes, 2017). 간접효과 $B=.089$ ($p<.001$)로 나타나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060)과 상한 값(.122)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순차적 모형의 간접효과(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영적·심리적 안녕감→부부조망수용→결혼안정성	.223	.037	.154	.298
영적·심리적 안녕감→부부갈등 대처행동→결혼안정성	.278	.035	.211	.353
영적·심리적 안녕감 → 부부 조망수용 → 부부갈등 대처행동 → 결혼 안정성	.089	.015	.060	.122

III. 닫는 글

1. 연구의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 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과 결혼안정성의 구조적 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연구 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이 부부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이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부부조망수용에 대한 영적·심리적 안녕감 모형($F=295.585$, $p<.001$)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에 대한 영적·심리적 안녕감 모형($F=365.324$,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결혼안정성에 대한 영적·심리적 안녕감($F=363.206$, $p<.001$)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결혼안정성에 대한 영적·심리적 안녕감의 결과는 선행연구(김지혜, 황경열, 2016; 박보경 외, 2017; 임하영, 박정윤, 조유현, 2014; 채유경, 2005; 황혜민, 2013) 결과를 지지한다. 김병화(2013)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 기간이 21년 이상인 부부에게서 공통적으로 자기분화가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가 있는 자기분화는 개인의 잠재력 개발, 삶에 대한 통제감 획득, 목적의식 확립, 긍정적 관계 경험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Huppert, 2009). 따라서 건강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면에 정서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적·심리적 안녕감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2) 기독교 중년부부의 부부조망수용이 부부갈등 대처행동과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

‘기독교 중년부부의 부부조망수용은 부부갈등 대처행동과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부부갈등 대처행동에 대한 부부조망수용의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237.419$, $p<.001$). 또한 결혼안정성에 대한 부부조망수용의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22.488$, $p<.001$). 부부조망수용 수준이 높아질 때 부부갈등 대처행동과 결혼안정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부조망수용이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25%, 결혼안정성의 31%를 설명해 주고 있다.

정문자, 전영주, 김수지, 정수빈(2010: 1325-1326)의 연구에서는 결혼 관계 내에서 배우자에 대한 관점과 입장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의 과정이 선행되면, 불필요하게 발생하던 오해와 긴장, 갈등, 불안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 이해의 관계로 확장되어 만족스러운 부부관계가 된다고 보고했다. 한혜영, 현명호(2006: 944-945) 선행연구에서는 부부조망수용이 애착과 결혼 안정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고은, 김기용(2020: 882-883)의 연구에서 인지적 활동으로 작용하는 조망수용은 행동을 조작하여 인위적으로 긍정성을 높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기독교 중년부부의 부부갈등 대처행동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

‘기독교 중년부부의 부부갈등 대처행동이 결혼안정성에 미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결혼안정성에 대한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492.996$, $p<.001$). 부부갈등 대처행동 수준이 높아질 때 결혼안정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김기용, 2019; 김수민, 이지연, 2015; 이영희, 이윤주, 2011; 전춘애, 박성연, 1993; 황지인, 함경애, 천성문, 2014; Hazan & Kobak, 1991; South & Spitize, 1986)를 지지한다.

4)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기독교 중년부부의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은 영적·심리적 안녕감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

적 안녕감에서 부부조망수용으로의 경로($B=.559$, $\beta=.587$, $p<.001$)와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결혼안정성($B=.635$, $\beta=.386$, $p<.001$), 부부조망수용에서 결혼안정성($B=.651$, $\beta=.377$, $p<.001$) 경로 모두 유의했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 대한 직접효과($B=.386$, $p<.001$), 총효과($B=.607$, $p<.001$) 및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값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부부갈등 대처행동으로의 경로($B=.672$, $\beta=.672$, $p<.001$)와 결혼안정성의 경로($B=.399$, $\beta=.245$, $p<.001$), 부부갈등 대처행동에서 결혼안정성($B=.886$, $\beta=.544$, $p<.001$) 간의 경로 모두 유의했다. 본 연구에 대한 직접효과($B=.245$, $p<.001$), 총효과($B=.610$, $p<.001$) 및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값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영적·심리적 안녕감은 부부조망수용은 46%, 부부갈등 대처행동 53%의 매개로 결혼안정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간접효과($B=.278$, $p<.001$) 결과가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최지원, 유혜원, 2018; Bekendam, 1997; Corcoran & Mallinckrodt, 2000; Davis, 1980; Greenberg & Mitchell, 1983; Long, 1990, 1993; Meeks, Hendrick, & Hendrick, 1998) 결과를 지지한다.

5) 기독교 중년 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부부조망수용,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부부갈등대처행동, 부부조망수용에서 부부갈등 대처행동, 부부갈등 대처행동에서 결혼안정성의 경로는 모두 $p<.001$ 미만에서 유의하였으며, 이 경로의 표준화된 계수는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출발하여 부부조망수용까지($B=.558$, $\beta=.587$, $p<.001$), 부부갈등 대처행동까지는($B=.518$, $\beta=.516$, $p<.001$), 결혼안정성까지는($B=.247$, $\beta=.151$, $p<.001$) 부부조망수용에서 부부갈등 대처행동까지는($B=.280$, $\beta=.265$, $p<.001$), 결혼안정성($B=.434$, $\beta=.253$, $p<.001$), 부부갈등 대처행동에서 결혼안정성까지($B=.752$, $\beta=.462$, $p<.001$) 나타났다. 순차적 매개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B=.165$, $p<.001$)와, 총효과($B=.614$, $p<.001$)가 나타났다. SMC 값으로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결혼안정성의 결과의 57%를 설명하고 있다. 간접효과는($B=.089$, $p<.001$, S.E. .15, LLCI .06, ULCI .122)로 나타나 유의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은 부부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이

직접적으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과 부부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이 결혼안정성에 직접적인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둘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부부조망수용은 부부갈등 대처행동,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기독교 중년 부부의 부부조망수용은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 대처행동은 갈등에 따른 각자의 방법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부부갈등 대처행동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부부갈등 대처행동이 갈등을 대하는 각자의 반응 방법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은 영적·심리적 안녕감과 결혼안정성의 사이에서 각각의 부분매개를 통해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기독교 중년부부의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은 영적·심리적 안녕감이 결혼안정성에 순차적 매개를 통하여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의 제언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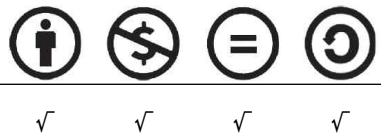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 소재한 교회와 기독교인 중년부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45세부터 64세까지로 국한하였기에 한국의 모든 기독교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적·심리적 안녕감, 결혼안정성, 부부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을 통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 그리고 교회의 관계성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독교 부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탐색하여 특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짐으로 영적·심리적 안녕감, 결혼안정성, 부부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에 대해 방어적 태도가 실제보다 과장 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의 평가나 관찰법, 개인적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경로 모형을 통해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 및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개인내적 영역인 영적·심리적 안녕감, 부부조망 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이 결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찰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현재까지 기독교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안정성 과정을 설명한 연구가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중년부부의 결혼안정성의 과정을 규명하고, 변수의 적용범위를 영적·심리적 안녕감에서 부부조망수용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을 거쳐 결혼안정성까지 확장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셋째, 국내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은 결혼안정성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중년 이혼과 가정해체가 심각한 현 사회에서 활용하도록 본 연구가 기초적인 선행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에 의의를 가진다.

- 논문 투고일: 2023년 01월 31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03월 02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03월 08일



【참고문헌】

- 강덕진 (2011). 중년기 남성 위기와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성 연구. 총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희천 (2000). **종교심리와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공정환 (2020). 결혼 전 준비교육을 통한 이혼 예방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혜경, 유영달 (2008).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이혼고려 정도 및 이혼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0(4), 1-34. <https://doi.org/10.21478/family.20.4.200812.001>
- 김경희 (2014). 대학생할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수용과 전념행동의 조절효과 분석.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고은, 김기용 (2020). 중년기의 조망수용과 분노반추가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3), 873-886. <http://dx.doi.org/10.22143/HSS21.11.3.62>
- 김기범 (1994). 중년 부부 결혼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목회 상담 연구. 한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용 (2019). 부부 관계변인이 중년 기혼남성의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난예 (2001). 기독교와 카톨릭 학생들의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신앙과 실천**, 30, 275-305.
- 김두길, 유영달 (2015). 중년기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177-191. <https://doi.org/10.5392/JKCA.2015.15.11.177>
- 김득성 (1994). 결혼초기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의 관계: 사회교환 이론적 접근. **가정대학연구보고**, 20, 25-34.
- 김득성, 권윤아 (2019). 중년 여성의 감사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즐거운 부부활동과 스트레스에 대한 협력적 부부대처를 매개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4), 145-168. <https://doi.org/10.21321/jfr.23.4.145>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미숙, 김명자 (1990).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8(1), 171-183.

- 김병화 (2013). 부부의 자기분화가 가족분화와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민, 이지연 (2015). 기혼 여성의 불안정 애착유형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과 부정적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251-264. <https://doi.org/10.15703/kjc.16.1.201502.251>
- 김수안, 차명정, 천성문 (2017). 중년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대한 형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8(3), 271-289. <https://doi.org/10.15703/kjc.18.3.201706.271>
- 김순숙 (2012). 중년기 기혼 남녀의 자기분화, 자아존중감, 갈등해결 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진 (2014). 중년부부의 부부갈등, 여가경험, 결혼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중년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부부의 결혼만족. **상담학연구**, 6(2), 621-632.
- 김지혜, 황경열 (2016). 남성 척수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 **특수육재활과학연구**, 55(2), 201-216. <https://doi.org/110.15870/jsers.2016.06.55.2.201>
-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17(4), 877-906.
- 노영희, 홍현진 (2009). **건강보전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서울: 한국학술정보.
- 문정희 (2015). 노부모의 의존성 및 과잉간섭과 중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노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남숙 (2005). 부부상담에서 집단상담의 치료적 활용: 문헌 고찰과 사례 연구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4), 1097-1118.
- 박만기 (2015). 집단미술치료를 활용한 렉시오 디비나가 중년 여성의 분노와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수 (2001). 하나님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보경, 신나나, 윤기봉, 김민주, 김수지, 윤선영 (2017).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애착,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38(5), 67-80. <https://doi.org/10.5723/kjcs.2017.38.5.67>

- 박수경 (2016). 중년기 결혼만족도 증진 프로그램이 부부건강성, 부부친밀감, 부부갈등 대처 방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벤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강숙, 주영아 (2015).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4), 697-718.
- 손아름, 임수진 (2019). 기혼자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3), 22-30. <https://doi.org/10.5392/JKCA.2019.19.03.022>
- 송말희 (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 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7.
- 송영민, 황희정, 권유흥 (2011).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고찰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분석. **관광레저연구**, 23(4), 407-426.
- 송정아 (1994).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13-130.
- 양신열 (1996). 부부갈등 극복을 위한 목회상담 연구.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선주 (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 40(10), 201-215.
- 오소정 (2016). 중년기 위기부부를 위한 이마고 커플 모레 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윤선 (2014). **힐링과 행복코칭**. 서울: 예영 B&P.
- 윤창섭 (2016).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위기극복과 교회 활성화. 장로신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석 (2015).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목회 돌봄 방안.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열 (2012). 부부갈등과 성적 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정 (2021). 중년기 부부의 성인애착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의 적용.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희, 이윤주 (2011). 부모의 부부갈등과 원가족분화, 부부친밀감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43-58. <https://doi.org/10.15703/kc.12.1.201103.43>
- 이은실 (2000). 학습자의 하나님 개념 이해: 문헌분석. **기독교 교육정보**, 1, 188-218.

- 이은아, 정혜정 (2007). 중년 남성의 심리적 위기감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301-329.
- 이효진 (2017).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하영, 박정윤, 조유현 (2014). 신혼기 부부의 부부관계신념 인지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9(4), 947-973. <https://doi.org/10.13049/kfwa.2014.19.4.947>
- 전영민 (2000).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에 관한 취약성-스트레스-적응 통합모형.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 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춘애, 박성연 (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81-96.
- 전혜성, 서미아 (2012).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4), 349-357. <https://doi.org/10.5392/JKCA.2012.12.04.349>
- 정문자, 전영주, 김수지, 정수빈 (2010).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갈등 주제, 역기능적 상호작용 유형 및 조망수용. **상담학연구**, 11(3), 1305-1324. <https://doi.org/10.15703/kjc.11.3.201009.1305>
- 정연표 (2010). 노년기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희 (2004). 원가족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주 (2001). 크리스찬 부부갈등 조사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근영, 김석선, 길민지 (2017).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保健社會研究**, 37(2), 126-149. <https://doi.org/10.15709/hswr.2017.37.2.126>
- 채유경 (2005). 폭력 노출 경험, 부부 갈등, 가족 기능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6(3), 1041-1054.
- 최규련 (1995). 가족 체계의 기능성, 부부 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

- 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미란 (2020). 중년기 여성의 이혼 위기 형성 및 해소 경험 연구: 부부 집단상담 참여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지원, 유혜원 (2018). 지혜로운 중년 부부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6(1), 77-107. <https://doi.org/10.21479/kaft.2018.26.1.77>
- 통계청 (2021). **혼인, 이혼통계**. 세종: 통계청.
- 한혜영 (2005).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5(4), 935-952.
- 홍지희, 김보영 (2021). 부모의 부부갈등이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부부갈등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349-1374. <http://dx.doi.org/10.23844/kjcp.2021.08.33.3.1349>
- 황종귀 (2009).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8(4), 825-840. <http://dx.doi.org/10.5934/kjhe.2009.18.4.825>
- 황지인, 함경애, 천성문 (2014).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36, 381-405.
- 황혜민 (2013). 척수장애인의 삶의 질 모형구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inton R. H. (1982). **마르틴 루터의 생애**(이종태 역, *Here I stand*).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950 출판).
- Banks, R. (1980). Health and the spiritual dimension: Relationships and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 preparation programs. *Journal of School Health*, 50(4), 195-202.
- Bekendam, C. C. (1997). *Dimensions of emotional intelligence: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lexithymia and empathy*. Santa Barbara, CA: The Fielding Institute.
- Bevere, J. P., & Bevere, L. (2015). **결혼**(유정희 역, *The story of marriage*). 서울: 두란노서원. (원전 2014 출판).
- Birchler, G. R., Weiss, R. L., & Vincent, J. P. (1975). Multimethod analysis of social reinforcement exchange betwee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spouse and stranger dya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31(2), 349-360.
- Booth, A., & White, L. (1980). Thinking abou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605-616.
- Booth, A., Johnson, D. R., & Edwards, J. N.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87-394.
- Call, V. R. A., & Heaton, T. B. (1997). Religious influence on marital stabilit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382-392.
- Coleman, J. C.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IN: The bobs Merrill.
- Collins, G. R. (1984). **크리스천 카운슬링**(이혜련, 피연희 역, *Christian counseling*). 서울: 두란노서원. (원전 1984 출판).
- Collins, G. R. (2004). **크리스천 코칭**(정동섭 역, *Christian coaching*) 서울: IVP. (원전 1972 출판).
- Conway, J. (1989). **중년의 위기**(윤종석 역, *Men in midlife crisis*). 서울: 디모데. (원전 1989 출판).
- Corcoran, K. O. C., & Mallinckrodt, B. (2000). Adult attachment, self-efficacy,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4), 473-483.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udley, M. G., & Kosinski, F. A. (1990). Religiosity and marital satisfaction: A research not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2(1), 78-86.
- Erikson, E. H. (1988). **아동기와 사회**(윤진, 김인경 역,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전 1963 출판).
- Gottman, J. M. (1982). Temporal form: Toward a new language for describing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943-962.
- Gottman, J. M. (1994). *Why marriages succeed or fail*. New York: Simon & Schuster.
- Gottman, J. M., & Notarius, C. I. (2002). Marital research in the 20th century and a research agenda for the 21st century. *Family Process*,

41(2), 159-197.

- Greenberg, J. R., & Mitchell, S. A.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zan, C., & Kodak, R.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Keller, T. (2014). **결혼을 말하다**(최중훈 역, *The meaning of marriage*). 서울: 두란노서원. (원전 2011 출판).
- Kelly, R. (2011). Why now? Why at all? In S. Seidman, N. Fishcher, & C. Meeks (Eds.). *Introducing the new sexuality studies* (pp. 433-440). London: Routledge.
-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pp. 268-294). New York: Free Press.
- Long, E. C. & Andrews, D. W. (1990). Perspective 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126-131.
- Long, E. C. (1990). Measuring dyadic perspective-taking: Two scales for assessing perspective-taking in marriage and similar dyad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0(1), 91-103.
- Long, E. C. (1993). Perspective-taking differences between high-and low-adjustment marriages: Implications for those in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3), 248-259.
- Mackey, R., & O'Brien, B. (1995). *Lasting marriages: Men and Women Growing Together*. Westport, CT: Praeger.
- McCubbin, H. I., Larson A. S. & Olson, D. H. (1982). F-COPES: Family coping strategies. *Family Inventori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 Meeks, B. S., Hendrick, S. S., & Hendrick, C. (1998). Communication, lov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6), 755-773.

- Mohr, P., Howells, K., Gerace, A., Day, A., & Wharton, M. (2007). The role of perspective taking in anger arousa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3), 507-517.
- Oswalt, J. N. (1986).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The book of Isaiah*. Grand Rapid, MI: Eerdmans.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 Paolucci, B., Hall, O. A., & Axinn, N. W. (1977).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John Wiley & Sons.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 Piper, J. (2010). **결혼신학**(이은이 역, *This momentary marriage*).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09 출판).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i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chumm, W. R., Bollman, S. R., & Jurich, A. P. (1982). The Marital Conventionalization Argument;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religios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0*(3), 236-241.
- South, S. J. & Sptize. G. (1986). Determinants of divorce over the marital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583-590
- Stock, W. A., Okun, M. A., & Benin, M. (1986). The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 91-102.
- Stoll, R., & Stoll, I. (1989). The essence of spirituality. In V. B. Carson (Ed.). *Spiritual dimensions of nursing practice*. Philadelphia, PA: WB Saunders.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White, J. (1995). **중년기와 그리스도인** (네비게이토 출판사 역, *The Christian in mid life*).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원전 1981 출판).
- White, L. K. (1983). Determinants of spousal interaction: Marital structure or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 511-519.
- Winter, W., Ferreira, A., & Bowers, N. (1973). Decision-making in married and unrelated couples. *Family Process*, 12(1), 83-94.
- Witte, J. (1998). Between sacrament and contract: Marriage as a covenant in John Calvin's Geneva. *Calvin Theological Journal*, 32, 9-75.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pective-taking,
Marital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Marriage Stability
of Middle-aged Christian Couples**

Kim, Jin soon* Oh, Yoon 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pective-taking, marital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marriage stability of middle-aged Christian couples.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724 middle-aged Christian couples in Korea. For statistical data, SPSS 21.0 and AMOS 26.0 were used.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were set to 5% or l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piritu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ad an effect on couple Perspective-taking, marital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marital stability. Second, Perspective-taking of the couple's view has an effect on marital conflict confrontation behavior and marital stability. Third, marital conflict coping behavior showed an influence on marriage stability. Fourth, spiritu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ave a direct effect ($B=.165$, $p<.001$) and an indirect effect ($B=.089$, $p<.001$) on marital stability through the path of Marital Perspective-taking acceptance and marital conflict coping behavior.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This means that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sequential effects have been proven in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and parametric relationships through this study.

Key words: Marital stability, spiritu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perspective-taking, marital conflict coping behavior

* Air Force 20th Fighter Squadron Barracks Counselor

** Korean Bible University, Department of Liberal Studies / Professor